

## 지문의 정의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본 칼럼은 내년에 출간될  
〈피램 독서 - 생각의 발단〉  
〈피램 독서 - 생각의 전개〉  
원고의 일부입니다.

무단 배포, 수정, 영리 활동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 정의 확인하기

수능 국어의 특징은 지문 내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의 답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제외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사용하셔야 할 개념은 모두 지문 내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오류없이,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재진술, 인과관계, 화제 잡기와 같은 독해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더라도 지문에 정의된 개념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문독해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평가원이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정의', '수식된 정의'로 나누어 배워볼 겁니다.

### - 일반적인 정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설명을 나중에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란 B이다.', 'A은(는) B이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의 제시 방식을 통해 지문의 개념을 정의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A에 대해 설명하겠구나!'하고 A를 이해해야겠다는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식된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쉽게 독해가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서술하는 문장'을 공부해봅시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가 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 '텍스트'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거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

-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위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은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써 있는 '소비 행위'일 것입니다.

- 이렇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가원이 정의해주는 개념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장들도 살펴봅시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 '맥놀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정의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S와 V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먼저 해보고 아래 서술된 저의 사고 과정과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항상 먼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 맥놀이란(S) 현상이다.(V) → 무슨 현상이지? →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구나. →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유는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서구나.

-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맥놀이라는 개념이 소리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두 개의 소리의 간섭'은 '맥놀이'의 정의가 아니라 맥놀이의 '원인'이니까요. 물론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이 익숙해지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게되면 '원인'과 같은 다른 정보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스스로 '생각하며 책을 성실히 따라온다면 여러분도 금방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 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 사막에 대한 정의가 두 개 등장합니다.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과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라고 말이죠. 두 정의 다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다음 문단에 나오는 정보들이 어떤 정의와 더 엮여 있느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판단하려면 두 정의를 손에 꼭 쥐고 있어야겠죠?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 이번에는 '프레임'의 정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 프레임은(S) 경계로서의 틀이다.(V) → 어떤 경계지? → 시각 매체에서 화면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구나! → 그 경계가 되는 틀이 프레임이네.

- 이렇게 프레임을 이해했더니 뒤에 '이중 프레임', '이차 프레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예시에서 '텍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와 관련된 '이차 프레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기법'을 '이차 프레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하는군요. 앞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레임'과 관련된 정의이지, 그것들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가적인 서술은 여러분의 사고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같이 달려봅시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가스 센서'의 정의가 나옵니다. '가스'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가스 센서네요. 가스 센서는 가스를 신호로 바꿔주

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살펴보니 ‘가스 센서 가운데’ ‘저항형 센서’라는 센서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위에서 봤던 ‘텍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저항형 센서’도 ‘가스 센서’이므로 ‘가스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후 추가적인 내용을 잡아줘야 합니다.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다든지, 감지 속도가 빠르다든지, 안정성이 높다든지, 소형화가 용이하다든지 말이죠. 일단 ‘저항형 센서’도 ‘가스 센서’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 - 수식된 정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정의’와 다르게 이번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되고, 그 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A가 제시됩니다. 설명이 개념을 수식해주는 것이죠. A를 개념, B를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때, ‘B인 A’, ‘B라는 것을 A라 한다.’ 등의 방식으로 정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제시될 경우 학생들은 ‘A에 대해 설명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B’라는 설명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어떤 개념이 나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정의’의 경우에는 A라는 개념을 먼저 말해준 뒤, B라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머리에 A와 B가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수식된 정의’의 경우는 A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인 B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의를 정확히 잡지 못해 내용 일치 문제 풀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글 전체를 독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내용을 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 독해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하나의 문장에 수많은 정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장의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집니다. 학생들이 최근 평가원 지문들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렇게 길어진 문장의 처리가 못하고 문장 내의 정보를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를 하는 데 곤혹을 겪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문장을 읽어야 할까? 이러한 문장을 읽을 때는 B라는 설명 후에 A라는 개념이 나오면, 다시 B로 돌아가서 어떤 설명이었는데 체크하면 됩니다. 강제로 ‘일반적인 정의’의 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langle B \rightarrow (A \rightarrow B) \rangle$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천천히 연습하고, 정의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는 물 흐르듯이 읽어도 한 문장의 여러 정의가 한 번에 뇌에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설명으로는 가슴 깊이 와닿지 않으니 아래의 예시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이번 파트의 예시들은 위에서와 다르게 실천처럼 빠르게 읽어보고 스스로 정의를 체크해 본 후 설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 이 문장의 개념(A)와 설명(B)을 문장에 체크한 후 아래 설명을 읽어보자.

- <디지털 매체 ~ 보는>까지 ‘낙관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개념은 ‘낙관론’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앞에 제시된 것이죠. ‘낙관론’을 읽는 순간 ‘낙관론’이 어떤 개념이었는데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문장을 다시 함께 읽어 봅시다.

- <디지털 매체 ~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B - A) → 낙관론? (A) → 정보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게 낙관론이구나! (B) →

매체 보급이 확대되니까! (B)

- 지금 보시면 <B → A → B> 형식을 따라서 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실전에서 딱 5초만 더 사용하면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식된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가 되었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정의를 챙겨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 긴 문장이 난무하는 킬러 지문이라도 물 흐르듯 지문을 읽어낼 수 있으니,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 개발 집약도'를 사용하며,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

- 이 문장의 개념(A)와 설명(B)를 문장에 체크한 후 아래 설명을 읽어보자.
-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정의되는>은 '연구 개발 집약도'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연구 개발 집약도'가 무엇인지 그 설명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다시 읽어 봅시다.
-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정의되는>은 '연구 개발 집약도'구나. → 연구 개발 집약도? →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의 비율이구나! (흔들 TIP : A 대비 B의 비율은 B/A입니다.) → 이걸로 기술 수준을 측정하네.
-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 것에 대비해서 투자액을 얼마나 지출했는가에 대한 정의가 '연구 개발 집약도'이고, 이것을 통해 기술 수준을 측정하네요. 이 비율이 4% 이상이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를 고정 1등급 학생의 사고 과정과 똑같이 독해하려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기술 수준을 측정'했다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유기적 독해를 한 것이죠. 다음 챕터에서 배울 '재진술'을 미리 연습해 본 것입니다. '재진술'은 다음으로 배울 기본 독해 도구이니, 그곳에서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 마찬가지로 개념과 설명을 문장에 표시해 본 후 설명을 읽어봅시다!
- 연비(A)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비는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B)이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고,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의 개념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이 중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이라는 연비에 대한 설명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어 '수식된 정의'의 방식으로 서술되었네요. 안 그래도 '연비'라는 개념의 정의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 데 이렇게 '수식된 정의' 방식의 서술까지 포함되면 쉽게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독해해 봅시다.
-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 연비로 나타내며> → 연비? 연비가 뭐지? →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구나! (A 대비 B의 비율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 연비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네!
-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인지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위한 노력과 능동적인 생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니까 사용하는 연료에 비해 운행 거리가 길면 좋겠네! 연비로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든 정의의 개념과 설명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생각'하고 '납득'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 마찬가지로 먼저 표시해보고, 어떻게 읽어야 좋을지 생각해 본 후 아래에서 비교해봅시다!
- 접근 시간(A)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이라는 추가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네요. 한 문장에 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했어야 하는 것은 '접근 시간'은 무엇인지, '탐색 시간', '대기 시간'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 봅시다.
- <접근 시간은 ~> → 아! 접근 시간에 대한 설명이네. → <트랙까지 ~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 대기 시간>의 합이다. →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의 합이구나! 근데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은 뭐지? → 탐색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대기 시간은 트랙 위에서 어떤 섹터가 헤드까지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구나.
- 이런 식으로 정의가 많이 나올 때는 순서대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근 시간'에 대한 큰 정의를 먼저 체크하고, 그 후에 '접근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루는 나머지 두 개념을 처리하는 것이죠.
- 이 문장에는 '헤드', '섹터' 등의 개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해하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장 하나가 아니라 지문 전체를 읽는다면, 분명히 이 문장 앞에서 제시되었을 '헤드'와 '섹터'의 정의를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결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떠올리려 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사고력이 올라갈 거예요!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연습은 앞으로 같이 더 해봅시다!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바실리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 스스로 먼저 해 본 후 아래 사고 과정과 비교합시다.
- <평면도상 ~ 바실리카 형식> → 바실리카 형식에 대한 설명이네?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나 보다. → 이 형식이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네. → 시장이랑 재판소가 공공 건축물이구나. →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되었네. 이거까지만 기억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노력해보자.
- 위 사고 과정을 보면 '수식된 정의' 방식의 서술 먼저 체크하고, 공공 건축물에 쓰였다는 것 체크하고(이 설명은 '일반적인 정의'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정의 확인하고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체크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의 체크고, 그 후에 부가적인 정보까지 챙겨가는 것입니다. 공공 건축물이나,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 등이요.